

「한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

- 대학박물관을 중심으로 -

문명대*

우리나라 박물관들은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특히 78개교나 되는 대학박물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박물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과제를 밝힌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 이용조 교수는 이를 자신이 오랫동안 운영했던 충북대학교 박물관을 예로 들어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과제를 무난히 밝히고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면관계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미처 언급되지 않은 한두가지를 보충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1. 현황과 성격

발표자는 대학박물관의 현황과 성격을

- ㄱ. 회원교의 수와 의미
- ㄴ. 학술조사활동
- ㄷ. 개관과 관람
- ㄹ. 예산 및 재정
- ㅁ. 인원구성
- ㅂ. 소장유물과 전시

사. 교육활동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어서 대학박물관의 문제점과 과제를 거의 총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ㄷ. 개관과 관람 항에서 충북대의 경우 해마다 관람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장품의 특색 때문이었다고 평가하며, 대학박물관의 전문화가 관람자의 수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박물관도 전시·기획 여하에 따라 관람자 수를 대폭 증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으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ㄹ. 예산 및 재정 항에서 예산이 모든 대학박물관들은 20%에서 100%이상 증가를 희망한다고 평가했는데 아마도 설문여하에 따라서는 수십배를 희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좀더 치밀한 설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기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인원, 소장유물이나 전시 공간 등이 태부족하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황 파악방법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어 이를 제시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대학박물관의 과제와 전망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학박물관이 보다 발전하자면 발표자가 제시한 과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지만 이외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 한 두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대학박물관을 대학종합평가에 포함시키고 전용건물 확보, 연구원 확보, 적절한 학술조사 등 발표자가 제시한 과제도 필수적이지만 이런 과제를 해결하자면 이를 실천할 인재와 재정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첫째, 인재는 연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작은 박물관의 성격과 능력을 좌우하는 것은 박물관장이므로 유능한 전문가 박물관장의 선임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유능한 전문가가 박물관장으로 선임된 대학박물관은 희귀할 정도로 적어지고 있다. 특히 총장 직선제가 박물관장을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박물관학회는 대학박물관 관장선임부터 유능한 전문가로 관장을 충당하도록 치밀하면서도 집요한 운동을 심도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확보 방안이다. 정부나 학교당국의 지원방안이 가장 주요하겠지만 이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유능한 전문가 관장을 임명하여, 발굴조사·연구사업 용역확보와 함께 후원회와 봉사단을 조직하여 재정확보에 매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